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 보건소의 △△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다면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식재료 조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찰떡궁합 식재료’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유용한 식재료 조합에 대해 이제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료 1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 조합에 대해 알아보시다. 육류와 마늘을 같이 먹으면 육류에 풍부한 비타민 B₁의 흡수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도와줍니다. 육류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생리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들이 많은데 육류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이죠. 또한, 우유와 딸기를 같이 먹으면 우유에 풍부한 칼슘의 흡수를 딸기의 유기산과 비타민 C가 도와줍니다. 된장과 부추도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조합인데요, 부추에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하여 된장의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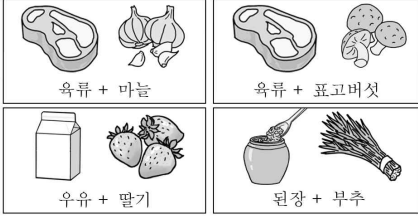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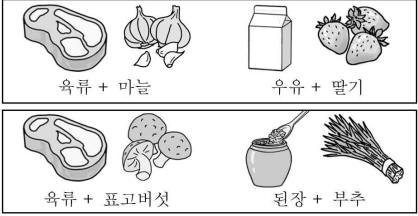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은 건강 상태에 따라 식이 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유용합니다. (자료 2의 상단을 가리키며) 위쪽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입니다. 비타민 B₁의 결핍으로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은 육류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골감소증을 겪는 어르신께는 우유와 딸기를 함께 드실 것을 권해 보세요. (자료 2의 하단을 가리키며) 아래쪽은 특정 성분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식재료 조합입니다.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하는 분이라면 육류를 먹을 때 표고버섯과 함께 드세요.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로 저염식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된장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재료는 부추와 같이 드실 것을 권합니다.

함께 먹으면 유용한 식재료 조합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도 있습니다. 보통은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많이 먹는데요, 시금치에 풍부한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멸치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시금치를 데쳐서 옥살산을 일부 제거하고 드세요.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이 요법이 필요한 질환을 언급하며 식재료 조합을 권유하고 있다.
- ② 영양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식재료 조합에 적용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식재료의 성분을 언급하며 유용한 식재료 조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중의 질문을 듣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식재료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강연에 반영된 자료 활용 계획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내용	활용 계획
<p>자료 1</p> 	함께 섭취하면 좋은 각각의 식재료 조합을 순차적으로 제시함.
↓	↓
<p>자료 2</p> 	㉠

- ① 특정 성분의 함유량 차이를 기준으로 식재료 조합을 비교하여 제시함.
- ② 연령대의 특성을 기준으로 추천 가능한 식재료 조합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 ③ 체내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식재료 조합을 선별하여 제시함.
- ④ 체내에서 배출되는 특정 성분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식재료 조합을 구분하여 제시함.
- ⑤ 함께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유사함을 기준으로 식재료 조합을 분류하여 제시함.

3.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전>

- 강연 제목을 보니 궁합이 좋은 식재료 조합을 소개하겠군. … ㉠
- 예전에 식재료 조합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 … ㉡

<듣기 후>

-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조합들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 ㉢
- 팽이버섯도 표고버섯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 ㉣
-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다른 식재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 ㉤

- ① ㉠에서는 강연 제목을 보고 강연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② ㉡에서는 강연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에서는 강연 내용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 ⑤ ㉤에서는 강연과 관련된 추가 학습으로 알게 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

[4 ~ 7] (가)는 학교 신문의 기사문이고, (나)는 공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교 신문의 내일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전교생 투표로 인터넷 신문으로의 전환 여부 결정하기로 —

지난 10월 24일 학생회 회의실에서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 신문을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A]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이어 갔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 토론은 우리 학교에 인터넷 신문 발간을 위한 플랫폼을 후원해 주겠다는 우리 지역 신문사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매월 말에 발행되는 종이 신문은 인터넷 신문으로 대체되는데, 이에 대해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인터넷 신문 발간을 지지하는 찬성 측과 종이 신문 발간을 고수하는 반대 측의 입장으로 갈렸다.

㉠ 인터넷 신문이 기사의 신속한 전달이라는 언론 보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신속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기능임을, 반대 측에서는 무분별한 기사 게재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 인터넷의 다양한 시청각 요소들이 기사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효과적인 기사 내용 전달이 가능함을, 반대 측에서는 학생들의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이 떨어질 것임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에서는 실시간 댓글로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영향력에 대해 깨닫게 됨을, 반대 측에서는 기사 게재 전에 자신의 기사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을 고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신문 동아리 학생들은 인터넷 신문으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교 신문을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찬반 양측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논거를 보강하여 공개 토론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공개 토론 이후 전교생이 투표를 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는 11월 5일 17시에 강당에서 개최된다.

(나)

사회자: '학교 신문을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저는 인터넷 신문이 기사의 신속한 전달이라는 언론 보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론 이후 저희 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들 중 몇몇은 종이 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발간되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사안들을 빨리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반대 1: ㉠ 소수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토론 이후 저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반대하는 비율이 55%나 되었고, 반대하는 이유 중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무분별한 기사 게재가 우려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전달의 신속성만을 중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는 이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기사들을 접한 경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 ㉡ 설문 조사의 결과가 언론사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의 반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지난 토론에서 저희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시청각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사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체 이론 전문가 마셜 맥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매체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매체 자체가 지니는 영향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영향력은 다양한 시청각 요소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확대된 매체 환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2: 다양한 시청각 요소를 활용한 정보 전달 방식이 확대된다고 해도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를 학습하는 데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바로 문자 언어 활용 능력입니다. 최근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 환경에서 문자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 문자 언어의 규범을 잘 지키지 않아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청각 요소를 활용하여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논의한 쟁점 외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는 쟁점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인터넷 신문을 통해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체 문화와 관련된 강연에서 인터넷 댓글 문화와 언론 보도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기사를 게재하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기자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자신의 기사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더욱 신중하게 기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반대 1: 언론 보도의 책임감은 종이 신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 독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미 작성한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책임감을 배우겠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기자는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기사 내용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게이트 키핑'은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결정권자가 기사를 검토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일컫는데 바로 이것이 기사 게재 전 이루어지는 숙고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기사가 게재된다면 공동체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종이 신문을 통해 언론 보도의 책임감을 내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은 (가)를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가)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개 토론을 진행하려는 목적을 언급해야겠군. ㉔
- 공개 토론이 진행될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겠군. ㉕
- 동아리 내에서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겠군. ㉖
- 쟁점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을 요약해야겠군. ㉗
- 투표 결과에 따라 공개 토론을 한다는 정보를 제시해야겠군. ... ㉘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5.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와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얼마 전 우리 학교 신문을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이어 갔지만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 ① 기사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독자의 경험을 추가하기 위해
- ② 기사문의 작성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 ③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기 위해
- ④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특정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 ⑤ 기사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긴 문장을 나누어 표현하기 위해

6.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반대 1’은 무분별한 기사 게재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② (나)의 ‘찬성 2’는 매체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 ③ (나)의 ‘반대 2’는 청소년들의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통해 ㉢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나)의 ‘찬성 1’은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 ⑤ (나)의 ‘반대 1’은 기사 게재 전의 숙고 과정을 의미하는 언론 관련 전문 용어를 통해 ㉤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7.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해석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의 출처가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8 ~ 10]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년에 시작한 건강지킴이 자율동아리 활동 시간에 틈틈이 운동을 한 덕분인지 요즘 들어 책가방이 점점 가볍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나와 달리 요즘 체력이 저하되어 쉽게 피곤해 하거나 아픈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해 관심이 생겨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 보니 이 정도로 나쁠 줄이야! 동아리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우리가 먼저 학교 운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아졌다. 그 실천의 첫걸음으로 나는 동아리 대표로서 교장 선생님께 학교 운동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글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내일 친구들을 만나서 건의문 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의논해 봐야겠다.

(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지킴이라는 자율동아리의 대표 ○○○입니다. 늘 학생들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 운동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들어 체력 저하 때문에 쉽게 피곤해 하거나 아픈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체력과 관련된 책을 읽어 보았는데 ㉠ 예전과 달리 우리 □□시 청소년의 체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런 일반적인 추세에 예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체력 저하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체육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본관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힘든 데다, ㉢ 체력 단련실은 교실이 모여 있는 본관에서 너무 멀리 있어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학교 운동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 방송을 통해 전교의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매주 최소 이들의 아침 조회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운동을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 보조 기구를 구입하여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를 쓰게 된 계기가 드러나 있다.
- ② (나)를 쓰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의 예상 독자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다.
- ④ (나)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를 쓰기 위한 글감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드러나 있다.

9.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통계 자료

1. □□시 청소년 체력 등급 연도별 비율

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6	10%	15%	25%	35%	15%
2017	15%	20%	20%	25%	20%
2018	20%	25%	15%	20%	20%

2. 우리 학교 학생 체력 등급 (근력 및 유연성) 연도별 추이

연도	근력 1등급	근력 2등급	유연성 1등급	유연성 2등급
2016	10%	8%	5%	4%
2017	8%	6%	4%	3%
2018	6%	4%	3%	2%

㉡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학교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유	비율
시간이 부족해서	45%
본관에서 거리가 멀어서	52%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 전문가 인터뷰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요즘 학생들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심합니다.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젖산 과다 분비로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더 큽니다.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을 배우고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력 밴드는 근력 강화에, 밸런스 매트는 유연성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 ① ㉠: ㉠-1을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우리 시 청소년들의 체력 등급 중 1, 2등급 비율이 감소하고 4, 5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② ㉡: ㉡-2를 활용하여 문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려면 근력과 유연성 면에서 모두 학생들의 체력 등급 중 1, 2등급 비율이 줄어든다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 ㉢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면 본관에서 거리가 멀어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④ ㉣: ㉣와 ㉣를 활용하여 건의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려면 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 ㉤-2와 ㉤를 활용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근력과 유연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근력 강화에 효과적인 탄력 밴드와, 유연성 증진에 효과적인 밸런스 매트를 구입해 달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10.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생기는 기대 효과를 제시할 것.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법을 활용할 것.

- ① 학생들에게 꾸준한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운동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학교 운동 문화가 조성되어 학생들의 체력이 증진된다면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건의를 꼭 받아들여주세요.
- ③ 학교는 학생이라는 나무가 모인 숲과 같은 공간입니다.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 ④ 제 건의가 받아들여져 학교 운동 문화가 조성된다면 학생들의 체력이 증진될 것입니다. 시들어 가는 꽃처럼 체력이 저하된 학생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⑤ 교장 선생님께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학교에 운동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체력이 증진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1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과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보기 2>

[학생이 작성한 학습지]

※ 빈칸에 ㉠~㉣의 표준 발음을 채우시오.

- 가로: ㉠ 굳히다
- 세로: ㉡ 훌이다

- 가로: ㉢ 꽃이슬
- 세로: ㉣ 숨이불

- ① ㉠은 ㉠에서 '교체'가, ㉡에서 '탈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② ㉡은 ㉢에서 '첨가'가, ㉣에서 '축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③ ㉠은 ㉠와 ㉡에서 공통적으로 '축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④ ㉡은 ㉢와 ㉣에서 공통적으로 '교체'가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 ⑤ ㉡은 ㉢와 ㉣에서 공통적으로 '첨가'가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은 홀로 쓰이는 본용언과, 홀로 쓰이지 않고 본용언 뒤에서 본용언에 특수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이 꺼져 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꺼져'는 '불이 꺼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본용언이다. 그러나 '간다'는 진행의 의미만 더해 주고 있어, '불이 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다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의 품사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른다. 예를 들어 보조 용언 '않다'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 동사,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쓰인다. 한편 보조 용언의 품사가 보조 용언의 의미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조 용언 '하다'가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이다. 또한 보조 용언 '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이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형용사이다.

본용언은 주로 본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보조 용언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다.'라는 문장은 본용언의 어간 '하-'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된 '하고'가 보조 용언 '나서'와 연결된 문장이다.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보통 두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의 추가를 위해 세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용언들이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가 있다.

12. <보기>의 ㉠ ~ ㉢를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내일 해야 할 업무가 생각만큼 쉽지는 ㉠ 않겠다.
- 나는 부모님께 야단맞을까 ㉡ 봐 애기도 못 꺼냈다.
- 일을 마무리했음에도 사람들은 집에 가지 ㉢ 않았다.
- 새로 일할 사람이 업무 처리에 항상 성실했으면 ㉣ 한다.
- 이런 일을 당해 ㉤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를 것이다.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①	a, b, d	c, e
②	a, c	b, d, e
③	a, d, e	b, c
④	b, c	a, d, e
⑤	c, d, e	a, b

13. 밑줄의 ㉠ ~ ㉤과 관련하여 <보기>의 ㉠ ~ ㉤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그는 순식간에 사과를 던져서 베어 버렸다.
- ㉡ 그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어 치우고 일어났다.
- ㉢ 그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가 꺼어 있어 행복했다.
- ㉣ 나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게 생겼다.
- ㉤ 나는 평소 밥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빵을 먹고 싶게 되었다.

- ① ㉠: '베어'는 어간 '베-'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 '버렸다'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② ㉡: '치우고'는 어간 '치우-'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어 '일어났다'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③ ㉢: '꺼어'는 어간 '꺼-'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 '있어'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④ ㉣: '앉아'는 어간 '앉-'에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결합되어 '있게'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⑤ ㉤: '먹고'는 어간 '먹-'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어 '싶게'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14.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파생어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파생어는 접사에 의해 본래 단어의 품사가 변화되는 경우와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나뉩니다. 다음은 사전에서 찾은 단어들입니다. 제시된 단어들에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를 찾아보고 분석해 봅시다.

더욱 ㉠ 정도나 수준 따위가 한층 심하거나 높게.

넓다 ㉡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덜다 ㉢ 물건 따위가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도록 넓은 천 따위를 엮어서 씌우다.

- ① '더욱'은 '더욱'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로 '더욱'과 품사가 다르겠군.
- ② '드넓다'는 '넓다'의 어근에 접사 '드-'가 결합된 파생어로 '넓다'와 품사가 같겠군.
- ③ '넓이'는 '넓다'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로 '넓다'와 품사가 다르겠군.
- ④ '뒤덜다'는 '덜다'의 어근에 접사 '뒤-'가 결합된 파생어로 '덜다'와 품사가 같겠군.
- ⑤ '덜개'는 '덜다'의 어근에 접사 '-개'가 결합된 파생어로 '덜다'와 품사가 다르겠군.

15. <보기>의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교사가 알려 준 내용>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서도 어말 어미 앞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었다. 그중 하나인 '-오-'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미로 문장의 주어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는데, 음성 모음 뒤에서는 '-우-'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더-'와 결합하면 '-다-'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와 결합하면 '-노-'로 나타났다.

<교사가 제시한 과제>

※ 다음 예문들을 보고 ㉠~㉣의 어미에 대해 탐구해 보자.

- 내 어저께 다섯 가지 꾸물 ㉠ 쑤우니
[내가 어저께 다섯 가지의 꿈을 꾸니]
- 내 이룰 爲원하야 ... 새로 스물여덟 字종틀 ㉡ 뵈그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 太子 | 닐오되 내 ㉢ 통담하다라
[태자가 말하되, "내가 농담하였다."]

- ① ㉠의 '-우-'는 어간 '쑤-'에 있는 음성 모음 때문에 나타난 형태이군.
- ② ㉡의 '-노-'는 '-느-'와 '-오-'가 결합되어 나타난 형태이군.
- ③ ㉢의 '-다-'는 '-더-'가 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이군.
- ④ ㉠과 ㉡에는 모두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가 사용되었군.
- ⑤ ㉠, ㉡, ㉢ 모두에는 주어와 화자임을 표현하기 위한 어미가 사용되었군.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요금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을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렇다면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에 통신이 일어난다.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한다.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전송해서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다시 지역요금소 ETC 서버를 거쳐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차량 단말기로 전송된다. 이때 이 데이터가 수신되면 차량 단말기를 통해 요금이 징수되며, 그 후 요금 징수 결과가 안내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A]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때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시분할 방식이다. 이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 슬롯을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는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 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되는데 이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때 타임 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은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 나누어 볼 수 있다.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통신 규약에 따라 타임 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에 지정해 놓는다.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 데이터의 종류에 지정된 타임 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된다. 하지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 슬롯은 빈 채로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차량마다 동일하다. ㉡ 결국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은 타임 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임 슬롯이 일부 낭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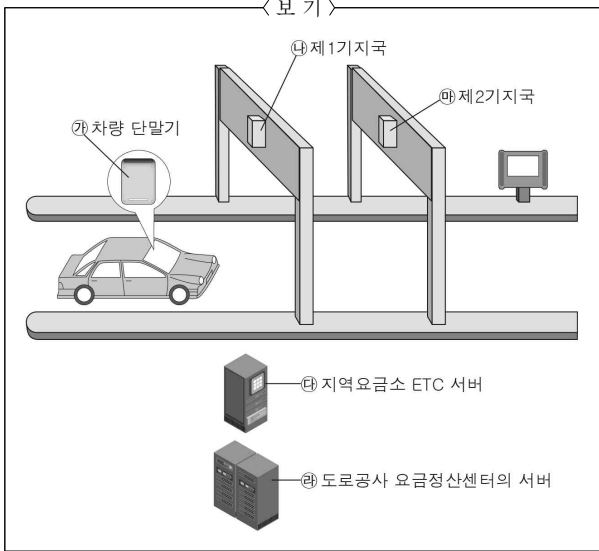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타임 슬롯을 비워 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타임 슬롯이 할당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 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 슬롯이 낭비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통신 기술의 발전과 교통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거나 통신 규약이 바뀌기도 하는 등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1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으로 이루어진다.
- ③ 시분할 방식에서 타임 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 ④ 타임 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들에 의해 구성된 집합체이다.
- ⑤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17.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 ②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 ③ ㉢에서 ㉣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 ④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되고, ㉢에서 ㉤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 ⑤ ㉣에서 ㉤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고, ㉤에서 ㉠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18. 윗글을 읽은 학생이 ㉠과 ㉡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

- | | | | |
|---|----------------|----|----|
| | ㉠ | ㉡ | ㉢ |
| ① | 오류 발생 가능성 | 낮고 | 높다 |
| ② | 오류 발생 가능성 | 높고 | 낮다 |
| ③ | 데이터 손실 가능성 | 높고 | 낮다 |
| ④ |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 | 낮고 | 높다 |
| ⑤ |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확성 | 높고 | 낮다 |

19. <보기>는 □□ 요금소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내용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상황]
□□ 요금소에 전자요금징수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하나의 차로를 1번 차량과 2번 차량이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서대로 지나갔다.

[데이터의 전송 유무]

데이터의 종류	I-1	I-2	I-3	I-4
차량 구분(시분할 방식)				
1번 차량 (동기식)	유	무	유	유
2번 차량 (비동기식)	유	유	유	무

※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내용

I. 데이터 종류의 순서	I-1.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함
	I-2. 후불 카드를 사용함
II. 데이터의 전송 유무	I-3.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함
	I-4. 요금 감면 대상임
	유: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일치함
	무: 데이터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과 불일치함

[타임 슬롯(TS)의 흐름]

(단, 두 차량 사이의 타임 슬롯은 존재하지 않고 1번 차량의 타임 슬롯은 TS₁부터 시작함.)

- ① TS₂는 비워지는 타임 슬롯으로 이는 1번 차량이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겠군.
- ② TS₃과 TS₇은 모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 슬롯이겠군.
- ③ TS₄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고, TS₈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겠군.
- ④ TS₁을 통해서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를, TS₇을 통해서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TS₅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TS₆에는 후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20.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
- ② 나는 그와 피를 나눈 형제이다.
- ③ 학생들을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었다.
- ④ 두 사람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 ⑤ 그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산다.

[21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때 기초자산은 농축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익을 발생시킨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거래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대상을 팔려는 매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거래대상을 사려는 매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 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인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 선도라는 파생상품이 이러한 계약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런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 거래와는 형태가 달랐다. 그래서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계약을 체결했다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위험이 높다는 불안정성이 늘 존재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동의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는 ㉡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나타났다.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 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거래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둘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어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선물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단이자 현재의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성화되었다.

선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이 있다. 반대거래는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선물 거래의 당사자는 바뀌지만,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유지되므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다. 개시증거금은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맡겨야 하는 증거금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유지증거금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의미한다. 일일정산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증거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장치이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매일매일의 손익을 따지

면서 반대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한편 일일정산의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거래소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증거금 계좌 잔고가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데 이를 마진콜이라고 한다. 이러한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 마진콜을 받은 당사자의 일일정산은 불가능하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거래 시점에서의 손익 계산 방법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B와 체결한다. 이는 곧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한다.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정한 주식 한 주당 가격이다.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된다면 A의 손익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것에 거래승수*를 곱하고, 이것에 다시 계약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A가 C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반대거래가 이루어져 A와 B 사이의 선물 거래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A의 손익은 A가 B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 방법에서,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반대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C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므로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되면 C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B에게 사게 된다.

* 거래승수: 선물 거래의 수량을 표준화하기 위해 곱해 주는 수치.

* 계약 수: 선물 거래의 표준화된 단위를 1계약이라고 할 때, 그 계약의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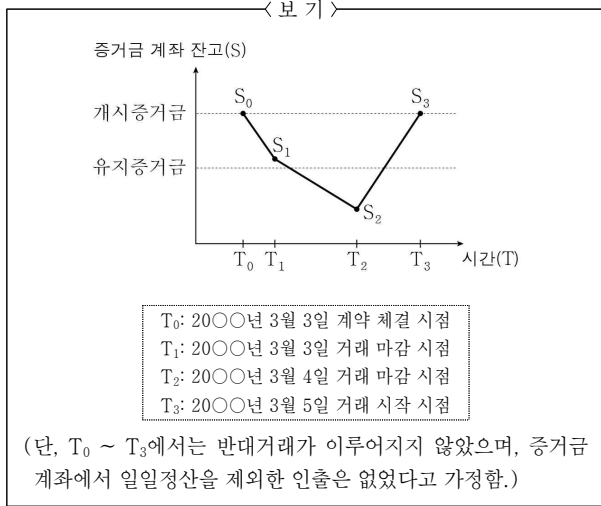
21. 밑줄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파생상품의 전망
- ② 파생상품의 종류
- ③ 파생상품의 정의
- ④ 파생상품의 기능
- ⑤ 파생상품의 등장 배경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 ② ㉠은 ㉡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할 위험이 높았다.
- ③ ㉠은 ㉡과 달리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 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한다는 계약이다.
- ④ ㉡은 ㉠과 달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거래, 증거금, 일일정산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T₀에서는 S₀이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선물 거래의 시작이 가능하다.
- ② T₀에서 T₁이 될 때 S₀이 S₁로 하락한 것은 일일정산에 의해 손해를 본 만큼의 금액이 증거금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이다.
- ③ T₁에서는 S₁이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선물 거래의 유지가 가능하다.
- ④ T₂에서는 유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₂를 뺀 만큼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마진콜이 발생한다.
- ⑤ T₂의 S₂보다 높아진 금액인 S₃은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T₃에서는 일일정산이 가능해진다.

24.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란 개시증거금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선물 가격 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도 크다.

- ①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에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군.
- ②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겠군.
- ③ 개시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군.
- ④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가치가 커진 기초자산의 수량이 늘어나서 개시증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게 되겠군.
- ⑤ 선물 가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개시증거금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거래 당사자의 손익은 정반대가 되겠군.

*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25번과 26번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상황]
 2000년 5월 10일, 갑은 △△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6월 8일에 을에게 사겠다는 5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5월 30일에 갑은 보유한 선물을 병에게 파는 반대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 선물은 6월 8일까지 반대거래 없이 유지된다.

[주식 가격과 선물 가격의 변화 (단위: 만 원)]

가격 \ 일자	5월 10일	5월 30일	6월 8일
주식 가격	13	10	7
선물 가격	15	12	8

(단, 거래승수는 10주로 하고, 거래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5월 10일에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 을은 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가 된다.
- ②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의 선물 거래 관계는 청산된다.
- ③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 대해서 선물의 매도자, 병은 갑에 대해서 선물의 매수자가 된다.
- ④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의 주식 거래 관계는 청산된다.
- ⑤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을은 병에 대해서 주식의 매도자, 병은 을에 대해서 주식의 매수자가 된다.

26. 다음은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이 5월 30일에 병과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 갑의 손익은 (㉠)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반대거래를 하지 않고 선물을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갑의 손익은 (㉡)만 원이 되었을 것이다.

- | | ㉠ | ㉡ |
|---|------|------|
| ① | -150 | -350 |
| ② | -150 | -400 |
| ③ | -30 | -80 |
| ④ | 15 | 40 |
| ⑤ | 250 | 400 |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공리에 따라, 즉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이 자신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 하는데,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본래적 가치로 여긴다. 이때 본래적 가치란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도구적 가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최선의 결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리주의는 크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이상 공리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쾌락의 증진으로 보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심리적 경험인 쾌락을 본래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들의 쾌락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 선호 공리주의이다. 이 이론은 최선의 결과를 선호의 실현으로 본다. 여기에서 선호란 사람마다 원하는 것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지닌 선호를 가장 많이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뿐만 아니라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고, 이런 선호의 실현이 곧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함으로써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러나 선호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과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이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 이상 공리주의이다. 이 이론은 앞의 두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인간의 행위를 옳은 행위로 여긴다. 그러나 이상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달리 쾌락을 유일한 본래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이론은 진실, 아름다움, 정의, 평등, 자유, 생명, 배려 등의 이상들도 본래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선호 공리주의와 달리 이상 공리주의는 이런 이상들이 인간의 선호와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본래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이론은 이상의 실현을 최선의 결과로 본다. 이상 공리주의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공리주의는 인간들의 서로 다른 관심과는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이상들을 인간이 더 많이 실현하는 것이 곧 최대의 이익과 행복이라고 본다. 그러나 ㉣ 이상 공리주의는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이 갈등하는 경우 어떤 이상의 실현이 최선의 결과일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선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이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공리주의 담론에서 최선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2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선의 결과’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최선의 결과’를 강조하는 세 이론을 제시하고 각각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들을 활용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최선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세 이론을 제시하고 각각의 주장과 한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최선의 결과’를 중심으로 세 이론을 소개하고 이론들이 제기한 문제점이 해결된 사회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최선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세 이론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 공리주의가 등장하였다.
- ②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에 개인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 ③ 공리주의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의 증진과는 무관하게 행위의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 ④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인간이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⑤ 공리주의는 인간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9. <보기>는 ㉣에 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어떤 경우에 이상들이 갈등할까?

학생 2: 안전벨트 착용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갈등했을 거야.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를 상위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가 아닌 생명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해.

학생 1: 나는 이상 공리주의 관점에서, 너의 의견이 고 봐.

- ① 생명이라는 가치를 자유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 ②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를 생명이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③ 생명이라는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 ④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를 자유라는 도구적 가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⑤ 자유라는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적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30. ㉠~㉡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A는 인문학 서적을 더 많이 읽기 위해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었다.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읽고 즐거움을 느낀 A는 동아리 첫 시간에 그 서적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 그 인문학 서적을 읽고 A와 동아리 친구들은 모두 큰 즐거움을 느꼈고, 동아리 내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였다.

- ㉠ ㉠: A가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에 대해 동일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든 행위는 쾌락이라는 심리적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 A가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읽는 행위는 자신을 포함한 동아리 친구들의 쾌락을 증진하였으므로 동아리 내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 A와 동아리 친구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A와 동아리 친구들의 선호 실현이라는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 A가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읽는 행위는 자신과 더불어 동아리 친구들의 선호를 실현시켰으므로 동아리 내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 A와 동아리 친구들이 배려와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읽고 동아리 내에서 실현한 배려라는 것은 배려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하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니 도흔 수령(守令)들 너호느니* 백성(百姓)이요
툽 도흔 변장(邊將)들 허위느니 군사(軍士)로다
재화(財貨)로 성(城)을 쯔니 만장(萬丈)을 뉘 너모며
고혈(膏血)로 히지 프니 천척(千尺)을 뉘 건너료
기라연(綺羅筵) 금수장(錦繡帳)*의 추월춘풍(秋月春風) 수이 간다
히도 길것마는 병촉유(乘燭遊)* 귀 엇덜고
주인(主人) 줌든 집의 문(門)은 어이 여럿느뇨
도적(盜賊)이 엇보거든 개는 어이 좃갓느고
대양(大洋)을 브라보니 바다히 여위였다
술이 썩더냐 병기(兵器)를 뉘 가디료
감사(監司)가 병사(兵使)가 목부사(牧府使) 만호(萬戶) 첨사(僉使)
산림(山林)이 비화던가* 수이곰 드러갈샤
어릴샤 김수(金睟)야 뵈 성(城)을 뉘 덕회료
우울샤 신립(申聿)야 배수진(背水陣)은 므스일고
양령(兩嶺)을 놓다하랴 한강(漢江)을 집다 하랴
인모(人謀) 불장(不臧)하니* 하늘허라 엇디하료
하나 한 백관(百官)도 수 칩을 썩이랴
㉠ 일석(一夕)에 분찬(奔竄)*하니 이 시름 뉘 맛들고

(중략)

질풍(疾風)이 아니 불면 경초(勁草)*를 뉘 아더뇨
도홍(桃紅) 이백(李白) 흘계* 머들조쳐 프르더니
일진(一陣) 서풍(西風)에 낙엽성(落葉聲) 썩이로다
김해(金垓) 정의번(鄭宜藩) 유종개(柳宗介) 장사진(張士珍)*야
죽느니 만커니와 이 죽엄 한(恨)티 마라

김해성이 틀허지니 진주성을 뉘 지리료
너남(雷南)* 장사(壯士)들이 ㉡ 일석(一夕)에 어디 간고
녹빈(綠蘋)을 안두 삼고 청수(淸水)를 잔의 브어
충혼(忠魂) 의백(義魄)을 어디 가 부르려는가
조종(祖宗) 구강(舊疆)*에 도적(盜賊)이 넘재 도여*
피마다 죽기거니 골마다 더듬거니
원혈(冤血)*이 흘러나려 평육(平陸)이 성강(成江)하니
건곤(乾坤)도 비자올샤 피(避)홀 디 전혀 업다

- 최현, 「용사음(龍蛇吟)」 -

- *너호느니: 짓씹느니.
*기라연 금수장: 호화로운 잔치.
*병촉유: 밤에 촛불을 밝혀 놓고 놀이를 즐김.
*비화던가: 비었던가.
*인모 불장하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지 않으니. 여기서의 사람은 지배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분찬: 달아나 숨음.
*경초: 역센 풀. 백성을 의미함.
*도홍 이백흘계: 꽃이 피는 봄. 태평스런 시절을 의미함.
*김해 정의번 유종개 장사진: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너남: 우리나라 최남단.
*조종 구강: 조상의 영토.
*넘재 도여: 임자 되어.
*원혈: 원통한 피.

(나)

목민관(牧民官)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사는 것인가? 백성은 곡식과 쌀, 삼과 생사(生絲)를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거마(車馬)와 하인을 내어 목민관을 보내고 맞이하며, 자신의 고혈(膏血)과 골수를 다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우니, 백성은 목민관을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 태초의 아득한 옛날엔 백성만 있었을 뿐이니, 무슨 목민관이 있었겠는가. 백성들이 즐비하게 모여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였는데 공평한 말을 잘하는 어르신에게 가서 이 문제를 바로잡았다. 사방 이웃들이 모두 감복해서 이 어르신을 추대하여 함께 높여 이정(里正)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더니 여러 마을의 백성들이 마을에서 다투어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준수하고 학식이 많은 어르신에게 가서 바로잡았다. 여러 마을이 모두 감복해서 이 어르신을 추대하여 함께 높여 당정(黨正)이라 이름하였다.

여러 당(黨)의 백성들이 당에서 싸워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어질고 덕이 있는 어르신에게 나아가 바로잡았다. 여러 당이 모두 감복하여 주장(州長)이라 이름하였다. 그러더니 여러 주(州)의 주장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장(長)으로 삼아 국군(國君)이라 이름하고, 여러 나라의 국군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장으로 삼아 방백(方伯)이라 이름하고, 사방의 방백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고 그를 황왕(皇王)이라 이름하였다.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되었으니,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 이때를 당해서 이정은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당정에게 올리고, 당정은 백성들의 바람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올리고, 주장은 국군에게 올리고, 국군은 황왕에게 올렸다. 이 때문에 ㉡ 그 법은 모두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세에는 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황제가 되어 자기

아들과 아우 및 가까이 모시는 자와 하인들을 모두 봉하여 제후로 삼고, 제후는 자기의 사인(私人)들을 뽑아 주장으로 삼고, 주장은 자기의 사인들을 뽑아 당정과 이정으로 삼았다. 이에 황제는 자기 욕심대로 법을 제정하여 제후에게 내려 주고, 제후는 자기 욕망대로 법을 제정하여 주장에게 내려 주고, 주장은 당정에게 내려 주고, 당정은 이정에 내려 주었다. 이 때문에 ㉠ 그 법은 모두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낮추며, 아랫사람의 재물을 깎아 내어 윗사람에게 보태 주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백성들은 목민관을 위해 사는 것처럼 된 것이다.

㉡ 지극의 수령은 옛날의 제후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들을 받들어 모시는 궁실과 거마, 제공되는 의복과 음식, 좌우에서 모시는 여인이나 내시, 노복들까지 임금에 맞먹는 정도이다. 그들의 권능이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그들의 형벌과 위엄이 사람을 두렵게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거만하게 스스로 높이고 태연하게 스스로 즐겨 자신이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한 사람이 싸우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가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어찌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가?”라고 하고, 한 사람이 굶어 죽기라도 하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쌀, 배와 비단을 생산하여 섬기지 않으면 매질하고 곤장을 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친다. 날마다 돈을 계산하고 장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돈과 배를 거둬들여 전택(田宅)을 마련하고 권세가나 재상에게 뇌물을 보내 훗날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어찌 바른 이치이겠는가.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 정약용, 「원목(原牧)」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활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연쇄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세태의 혼란함을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용사음」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상과 의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면한 지배층에 대해 분노하며 의병으로 참전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의병들의 충성스러운 희생이 부각됨으로써 백성들의 강인함이 형상화되었다.

- ① ‘하나 한 백관도 수 치을 썬이랴다’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병들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겠다.
- ② ‘질풍이 아니 불면 경초를 뉘 아더뇨’를 통해 임진왜란에서 드러난 백성들의 강인함을 짐작할 수 있겠다.
- ③ ‘충훈 의백을 어디 가 부르려는가’를 통해 의병들의 충성스러운 희생을 짐작할 수 있겠다.
- ④ ‘조종 구강에 도적이 님제 도여’를 통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다.
- ⑤ ‘원혈이 흘러나려 평옥이 성장흐니’를 통해 임진왜란에 의해 벌어진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 관리들 중에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며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망각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리들은 백성을 수탈하며 탐욕스러움을 드러내거나 백성을 가혹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방탕하게 향락에 빠지기도 하였다. 백성에 대한 관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함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은 백성의 빈곤과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다.

- ① (가)의 ‘니 도흔 수령들 너흐느니 백성이요’와 (나)의 목민관이 백성을 ‘매질하고 곤장을 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는 것에서 백성에 대한 관리들의 가혹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가)의 ‘재화로 성을 쓰니 만장을 뉘 너모며’와 (나)에서 목민관이 ‘돈과 배를 거둬들여 전택을 마련’한다고 한 것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탐욕스러움을 엿볼 수 있다.
- ③ (가)의 ‘인모 불장흐니 하늘하라 엇디흐료’와 (나)의 목민관이 ‘굶어 죽은 ‘한 사람’에 대해 ‘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백성에 대한 관리들의 무책임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가)의 ‘히도 길것마는 병축유 귀 엇딜고’에서는 관리들의 방탕함을, (나)의 목민관이 ‘자신이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에서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음을 엿볼 수 있다.
- ⑤ (가)의 ‘죽느니 만커니와 이 죽임 한티 마라’에서는 관리들이 초래한 백성의 빈곤함을, (나)의 목민관이 ‘형벌과 위엄’으로 백성을 ‘두렵게’ 한다고 한 것에서는 관리들의 무능력함을 엿볼 수 있다.

3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는 현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 ② ㉠과 달리 ㉣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 ③ ㉠과 달리 ㉣에는 개인의 안위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드러난다.
- ④ ㉠과 달리 ㉣에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투쟁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 ⑤ ㉠과 달리 ㉣에는 피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드러난다.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백성의 바람이 반영된 편안한 삶이라는, ㉣은 목민관을 위한 백성의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② ㉠은 백성의 결핍이 충족되는 삶이라는, ㉣은 목민관이 백성의 염원을 지지하는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③ ㉠은 백성의 번민이 거둬지는 삶이라는, ㉣은 목민관의 요구가 영향을 미친 백성의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④ ㉠은 백성의 의무가 강요되는 삶이라는, ㉣은 목민관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는 백성의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 ⑤ ㉠은 백성의 욕망이 좌절되는 삶이라는, ㉣은 목민관에 의해 백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36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검*의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증명했건가요.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피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겁지겁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몰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羊)처럼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 윤동주, 「흰 그림자」 -

*땅검: 땅거미

(나)

잘라놓은 ㉠ 연어의 살 속엔
나이테 무늬가 있다
연하디 연한 연어의 살결에
나무처럼 단단한 **한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리라
중력을 거부하고 하늘로 **솟구치던 나무**를
눈바람이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체 근육에 새겨넣은 굴렁쇠같이 단단한 것이
나무의 나이테이듯이
한사코 아래로만 흐르려는 물길을 거슬러
㉡ 폭포수를 뛰어넘는 연어를
㉢ 사나운 물살이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칠 때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솟구쳐
여린 살 속에 쓰라린 햇살이 나이테로 쌓였으리라
켜놓은 원목의 나이테가
제가 맞은 눈바람을 **순한 향기**로 뿜어내놓듯이
그래서

연어의 살결에선 ㉣ 강물 냄새가 나는 것이다
죽은 어미연어의 나이테를 먹은 새끼연어가
폭포수를 뛰어넘어 ㉤ 몇 만 년을 두고
다시 그 강에 회귀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 복효근, 「연어의 나이테」 -

36.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흰 그림자’는 암담한 시대 현실에서 고뇌로 지친 화자의 분신인 분열된 자아를 상징한다. 이는 공존과 애정의 대상인 동시에 내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로써 번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

- ① ‘하루 종일 시들은 귀’, ‘오래’ ‘피로워하던’ 것을 통해 시대 현실 속 고뇌로 지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수많은 나’를 ‘제고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통해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흰 그림자들’을 ‘연연히 사랑’했었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분신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황혼처럼 몰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허겁지겁’을 느끼는 것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시름없이 풀포기’를 ‘뜯’겠다는 것을 통해 번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38.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연어의 나이테」는 생의 형식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연어와 나무 사이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두 대상을 연결한 작품이다. ‘낮선 대상’과 ‘낯익은 대상’을 연결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두 대상이 연결되는 양상과 시적 의미를 탐구해 보자.

- ① ㉠과 ‘체 근육’은 유사한 형태의 무늬를 지녔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연어의 무늬에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단단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솟구치던 나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아래로 향하는 힘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연어에게 나무와 같은 강인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 ‘눈바람’은 대상에게 가해지는 반복적인 시련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연어가 나무처럼 부단히 반복되는 시련을 겪어 내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 ‘순한 향기’는 대상이 시련을 겪은 결과 지니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연어가 나무처럼 시련을 승화시켜 간직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한 시절’은 대상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가 나무처럼 생을 마감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권익중과 이 남자는 혼인을 약속하였으나 조정의 세력가 옥낭목으로 인해 혼인이 좌절되고 이 남자는 자결한다. 그 후 권익중은 권 승상의 권유로 위 남자와 혼인하나 이 남자를 잊지 못한다.

이 남자는 죽어 천상에 올라가서 선녀가 되었다. 옥황상제께서 이 남자를 보고,

“너는 인간 세상에서 배필을 만나지 못하고 원통히 죽었으니, 강남 악양루 죽림 속에 가 있으면 자연 네 배필 익중을 만날 것이다.”

라 하시고, 또한 허수아비를 만들어 주시며

“이 허수아비의 이름은 우인이며, 자태와 얼굴은 익중과 같이 만들었노라.”

라 하였다.

우인이 익중의 집을 찾아가니 승상과 부인이며 위 남자가 익중인 줄 여겨 반겨하고 서촉 안부를 물으니, 우인이 대강 대답하고 진짜 익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권생이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안에 들어서니, 당상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익중이 이를 보고

[A] “내가 서촉으로 갈 때에 저러한 귀신이 꿈에 현몽하여 ‘나는 금강산에 사는 헛개비라는 귀신이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의탁할 곳이 없다. 내가 들으니 너의 집이 부자라 하니, 모월 모일에 너의 집을 찾아가서 너를 쫓아내고 내가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대낮에 들어온다 하였거든, 저 놈이 그놈이로다.”

라고 짐작하고 중문에 서서 부모를 불렀다. 승상은 부인을 불렀고 기가 막혀 묵묵히 말없이 앉아 있을 따름이라. 익중이 들어오니 난형난제(難兄難弟)되어 어느 것이 참 익중이며 어느 것이 거짓 익중인지 알기 어려웠다. 승상이

“자식이 아버지만 못하다 하였으니 아버지도 몰라보는구나.”

라 하니, 부인이

“먼저 온 것이 참 익중이 분명하고 나중 온 것이 귀신이 분명하다.”

하고는

“어젯밤에 여차여차한 꿈을 꾸었더니 과연 그대로이구나. 승상은 의심치 마소서.”

하였다. 이어서 부인이 하인을 불러

“중문에 들어오는 귀신을 급히 돌려 내쫓아라.”

라고 하였다.

이에 하인이 병거지를 둘러쓰고 대문 밖에 쫓아 나가, 복숭아 나무의 굵은 가지를 싹 꺾어 손에 쥐고는 아래 종아리를 두드리며, 개떡을 이마 위에 철썩 붙이고 물밥을 등에 얹은 후, 익중이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산골 물이 칼칼 소리 내며 흘러가듯 두들겨 때렸다. 익중이 하는 수 없어 뛰쳐 나와 마을 앞 수풀 속에 기대어 앉아서 생각해 보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세상에 이런 허황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이것이 다 가짜 익중 때문이나,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의 구변으로도 밝힐 길이 없었다. 다시 들어가 맞아 죽기를 결단하고 한번 진위를 분별해 보리라고 여기다가 돌이켜 생각하여,

‘가짜로 들어온 귀신에게 두들겨 맞은 꼴로 변명도 쓸 때 없겠거니와, 이제 천하강산 두루 돌아 구경이나 다한 후에, 강

남 명월 악양루를 구경하고 동정호에 빠져 죽으리라.’ 하고는 일어나 길을 나섰다.

(중략)

익중은 화려한 꽃무늬 금관 모자에 꿈틀거리는 용무늬 새겨진 허리띠를 두르고, 남자는 칠보단장 갖춘 후 녹의홍상을 입고서 육례를 치르니, 팔선녀들이 움직이며 작위하고 온갖 악기들로 풍악을 울렸다. 예를 마친 후에 여러 선관들이 익중의 손을 잡고,

“우리는 천상의 선관으로 상제에게 명을 받아 그대에게 예를 이루게 하노라.”

하고는 이내 구름을 타고 행행이 사라졌다.

익중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돌아와 남자와 함께 하룻밤 동침하니, 깊은 밤에 만단정회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익중이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여 남자의 목을 훔쳐 안고 희희낙락하여

[B] “바람아, 불어라. 비야, 오너라.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고여 한 풀어진다. 둘이 몸을 뭉치다 동정수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런 사랑 또 있을까. 우리 둘이 만났으니 태산이 평지되고 하해가 육지가 되도록 살아 보세.”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명성이 들리자 남자가 일어나 앉아 촛불을 밝히고 약 세 봉지를 주며 말하기를,

“상제의 명령이 계명성이 들리거든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천상옥황께서 허수아비를 보내었으니 이 약을 가져다가 한 봉을 대문 안에 떼어 보소서. 푸른 빛 연기가 일어나며 허수아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오 년이 지나 이곳에 와서 오늘 밤 복중에 들어 때가 찬 아이를 데려가옵소서. 이것이 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악이라. 서로 만나 해로할 날이 멀었으니 어찌 하오리까?”

익중이 듣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오늘 남자를 만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였더니 이것이 웬 말이오? 가지 마시오. 못 가요. 기약 없이 못 가나니, 만정의 회포 풀지 못하고 간다는 말이 웬 말이오?”

남자가 다시 위로하여,

“낭군님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옵소서. 천명을 어이 거역하오리까?”

하며 이별주를 부어 들고 이별곡을 지었다.

- 작자 미상, 「권익중전」 -

* 소진과 장의: 전국시대의 인물로 연변과 설득력이 뛰어나.

39.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인물과의 대립을 통해 주인공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상은 익중과 우인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② 승상 부인은 자신의 꿈을 근거로 우인을 익중으로 믿었다.
- ③ 익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중은 화를 내는 우인을 보았다.
- ④ 익중은 우인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유람 후에 죽기로 결심했다.
- ⑤ 위 낭자는 안부를 묻는 말에 대한 우인의 대답 때문에 우인을 반겼다.

4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현실적 인물에 대한 연민을, [B]에서는 비현실적 인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방의 위세에 대한 두려움을, [B]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추측을, [B]에서는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에서는 실현 가능한 사건에 대한 인물의 믿음을, [B]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인물의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예상했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안도감을, [B]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권익중진」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진가쟁주(眞假爭主)’가 나타난다.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진가쟁주는 권익중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권익중이 고난을 겪게 한다. 하지만 진가쟁주는 선녀가 된 이 낭자와 권익중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 그 둘은 재회하게 된다.

- ① 옥황상제가 자태와 얼굴이 진짜 익중과 똑같은 가짜 익중을 만든 것을 보면 진가쟁주가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② 하인이 진짜 익중을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보면 진가쟁주가 익중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③ 가짜 익중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진짜 익중이 이 낭자를 만나서 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진가쟁주가 익중과 이 낭자를 재회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④ 승상의 부인이 가짜 익중을 진짜 익중으로 믿어 진짜 익중을 쫓아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진가쟁주가 익중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⑤ 이 낭자가 가짜 익중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진짜 익중에게 알려주면서 오 년 후 가짜 익중과의 만남을 예상하는 것을 보면 진가쟁주가 만남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득이가 두 살 나던 해 9월 남편은 논에서 일을 하다 말고 **전쟁터로 끌려 나갔다.** ㉠ 남편은 흙이 묻은 손으로 화물 열차에 **떠밀려 들어가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

“소 잘 간수하고, 만득이 병 안 들게 혀!”

남편은 문단속 잘하고 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징용을 끌려갈 때처럼** 기차는 산굽이를 돌아갔고, 그네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낮 잃은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 질 무렵에야 논둑에서 눈만 껌벅이고 쪼는 소를 끌고 오면서 그네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무나 다 죽간디? 죽고 사는 것이야 다 운수소관이어.”

이장 어른의 말은 남편이 노무자로 나갔다고 했다. 이북 사람들이 쳐 내려와 싸움이 한창이라는 것이었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낮모를 객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피란민이라고 했다.** ㉡ **동네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란을 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다.**

어수선한 인심, 힘쓸 남자들이 없는 농촌. 궁색한 속에 해가 바뀌고, 그네가 남편을 한 줌의 재로 맞은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남편은 집을 떠난 지 1년 반이 가까워 재로 변해 온 것이었다. 그네 나이 스물일곱이었다.

전쟁은 다음 해에 끝났고, 남편의 삼년상이 지나기 전에 누구의 입에선지 모르게 동네 사람들은 그네를 청산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청산택은 이를 양다물었다. 울어서 돌아올 남편이 아니었고 전답을 두고 두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청산택은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어렵게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장애가 있는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 만득이는 군대에 간 후 월남으로 떠나게 된다.

청산택은 며칠 남지 않은 손자 둘 채비에 일손이 바빴다. 콩나물도 통통하게 살아 오른 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자라 있었다. 고사리며 취나물 등 산나물도 물에 담가 두었고 삶아서 두 번 물을 갈았다. 돌떡은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가 인절미며 백설기 절편은 물론 수수떡도 하고 약과도 만들 작정이었다.

청산택은 마루에서 수수를 고르고 있었다. 옆에 놓인 트랜지스터에서는 재방송 연속극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산택 기시요?”

[A] “누구다요?”

청산택은 연속극에 귀를 기울인 채 고개를 돌렸다. 반장이 낮모를 사내를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마침 기셨구만이라.”

“워쨌 일이요. 일로 앉으세요.”

청산택은 마루를 대충 치웠다.

“괜찮으요. 근디, 읍사무소서 나온 양반이요.”

반장은 낫선 사내를 가리켰다.

“저 실례합니다. 읍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세금 다 냈는디 읍사무소는 무신…….”

“그게 아니고요. 저 천만득이 모친이 틀림없지요?”

“야, 그런디요?”

“저 다름이 아니라…….”

㉢ **사내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주저하고 있었다.**

“무신 일이다요? 아, 앉거나 허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이걸 전하려고.....”
 사내는 한 발짝 다가서며 종이를 내밀었고, 반장은 굳은 얼굴로 외면을 하고 있었다.
 “까막눈인디 뉘지 알겠소?”
 “저 다름이 아니라..... 천만득이 전사 통지합니다.”
 “.....”

남편의 얼굴이 확 다가들었다. 만득이 얼굴이 뒤범벅이 되었다. 남편을 한 줌의 재로 맞던 날, 싸우다 죽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정신을 잃었던 그 무시무시한 말, 전사 통지서.

“위저? 전사 통지서?”
 ㉓ 청산택은 벌떡 일어서는가 했더니 나무 등처럼 그대로 나가넘어졌다. 눈알이 허영게 뒤집혀 있었다.

반장과 읍사무소 직원이 찬물을 끼얹고 수족을 주무르고 해서 한참 만에 정신이 들었다. 청산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잠시 주춤하더니 곧 읍사무소 직원에게로 달려들었다.

“내 자식을, 내 자식을, 안 된다니까 안 되여. 위째 내 자식을.....”

청산택은 소리소리 지르며 읍사무소 직원에게 매달렸다. 그런 청산택의 눈에는 파란 불이 켜져 있었다.

청산택은 이빨을 부르드득 갈더니 직원의 양복 깃을 틀어잡은 채 또 까무러쳤다.

청산택 손에서 풀려나온 직원은 뺨소니를 쳤다.

다시 정신을 차린 청산택은 소리를 지르며 읍내로 뺨은 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맨발인 채 뛰고 있는 청산택의 낭자머리는 헤풀어졌고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청산택은 그길로 실성을 해 버렸다는 말이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다.

청산택은 돌아오지 않았고 밤새도록 며느리의 곡소리만 어둠에 번지고 있었다.

청산택은 사흘 후에 차에 실려 돌아왔다. 그날 청산택은 읍사무소에서 또 까무러쳤고, 그길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청산택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청산택을 보자 며느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청산택은 표정 없는 얼굴로 며느리 품에서 손자를 옮겨 안았다.

“울지 말아라. 무신 소양이 있다. 자식 맘새 이빨 앙물고 살아 사 쓴다. 방앗간에 가서 쌀 찧어 오니라. 나는 술일 뜯으로 갈란다. 니 남편은 송편을 억씨게 좋아했니라.”

㉔ 청산택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늦도록 청산택은 송편을 빚었다. 손자 돌잔치에 쓰려고 장만했던 쌀로 아들 장례에 쓸 송편을 온 정성을 다해 빚고 있었다. 모래 국군묘지에서 장례식을 올리기 때문에 내일 떠나야 된다고 읍사무소에서 병원으로 알려 왔던 것이다.

“전생에 무신 악헌 죄를 짓고 나서 요리 복 쪼가리도 읊는고. 한평생 살기가 요리도 험하고 기구할 수가 있당가. 이 새끼 맘새 죽어뵈지도 못하고.....”

잠이 든 손자의 볼을 쓰다듬는 청산택의 두 볼에 눈물이 골을 파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 조정래, 「청산택」 -

43.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과거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투리의 활용을 통해 상황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반복적 행위를 제시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4. ㉓ ~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갑자기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청산택 남편의 걱정을 엿볼 수 있다.
- ② ㉔: 전쟁이 끝나자 객지에서 물려든 피란민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감을 엿볼 수 있다.
- ③ ㉓: 만득이의 전사 통지서를 청산택에게 전하려는 낯선 사내의 망설이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④ ㉔: 예상치 못한 만득이의 전사 소식을 들은 청산택의 충격을 엿볼 수 있다.
- ⑤ ㉔: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조언을 하는 청산택의 차분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는 역사적 질곡이 빚어낸 민족의 희생이 드러나는데, 특히 반복되는 수난을 겪는 여성 개인의 한(恨)이 부각된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손을 지키려는 의지로 발현된 개인의 강인한 모성은 시대의 아픔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 ① 청산택의 남편이 ‘정용을 끌려갈 때처럼’ ‘전쟁터로 끌려 나갔다’는 것에서 역사적 질곡이 빚어낸 민족의 희생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청산택이 ‘전사 통지서’ 때문에 ‘남편의 얼굴’과 ‘만득이 얼굴이 뒤범벅이 되’는 느낌을 경험한 것에서 여성의 반복되는 수난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청산택이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손에는 낫’을 들고 ‘맨발인 채 뛰었다’는 것에서 시대의 아픔을 겪은 사회를 치유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청산택이 며느리에게 ‘울지 말’고 ‘자식 맘새 이빨 앙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자손을 지키려는 여성의 강인한 모성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청산택이 ‘손자 돌잔치에 쓰려고 장만했던 쌀로 아들 장례에 쓸 송편을 온 정성을 다해 빚었다’는 것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